

국비 확보 위해 여야지도부 집중 설득

김관영 도지사, 27일까지 사흘간 우원식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찾아 릴레이 면담... "국회와 지속 소통할 것"

김관영 도지사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의활동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야 핵심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을 갖는다.

김 지사는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2025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활동에서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을 비롯,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내부개발 사업비 850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0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 지역에 전문 재활병원이 없어 도민들의 불편을 설명하며,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비 23억원 증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면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액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관련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 실버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전북 지역의 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비 5억원 등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

한 사업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장과 면담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전북자치도가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여야 지도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5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후속 협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거짓증언 요청 아니다"

故 김병량 수행비서 김진성 벌금 500만원 '김진성 위증 일부 유죄... 이재명 교사 아나 이재명-김진성 통화, 방어권의 행사 수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지는 혐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청 사건 당시 김병량의 핵심 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논란이 된 증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위증의 고의'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에게 김진성의 위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고의"에 대해서도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이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정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 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정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정할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정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뉴스시스

전북자치도의회, 베트남 다락성 의회와 우호교류 다져

교류협력 강화·새 비전 공유



류사업으로 함께 성장하고 응원하는 친구"라며, "앞으로 함께 이루어 나갈 분야가 무궁무진한 만큼 의회도 함께 힘을 보태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월 티 지엔 화' 다락성 의회 의장은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해준 의정님을 비롯한 도의회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양 지역은 행정, 문화, 청소년, 직업교육, 개발협력 등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으며 이번 의회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의회와

다락성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새로운 비전을 공유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후 의회 대표단은 지난 23일과 24일에 베트남 다락성 지역특산물 판매 전시관을 비롯한 커피·코코아 가공회사 등 다락성 우수기업을 시찰하며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현지조사를 통해 농식품 수출 가능성도 함께 살펴본 후 귀국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다락성은 2017년 12월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7년 동안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진행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만)는 제 312회 2차 정례회 이틀날인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2024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조민규 의장은 앞서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은 "군정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개선함으로써 집행부가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원대한 꿈의 세계

WONDERLAND WKU

원광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리)

원광대학교 2025학년도 편입학모집 원서접수 2024. 12. 9(월) ~ 2024. 12. 13(리)

www.wku.ac.kr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전북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를 안정시키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종사자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과 제한된 복지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은 단순히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전북이 돌봄 노동과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되짚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를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북이 스스로의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자치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타 시도의 평균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과 호봉제 상한 폐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명확한 증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명절수당, 식대, 가족수당 등 복지 체계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스스로 공동체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질과 안정감을 제공할 때, 더 이상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 아니라, 희망을 꿈꾸는 지역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역사문화연구원

정읍아리랑자료조사 용역 보고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의원 연구단체 '정읍 역사·문화 연구회' (대표 송기순)가 지난 22일 '정읍 신대인아리랑(정읍아리랑) 자료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읍시의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정책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특히 신대인 아리랑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학술적 가치를 조사하고 신대인 아리랑이 정읍 공동체 문화로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취지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읍 역사·문화연구원 6명(송기순, 이상길, 정상철, 오명제, 김석환, 고성환 의원)이 참석해 연구용역 수행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구술(口述)로 전해져 오는 신대인 아리랑의 기초자료와 학술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연구과제에 대해 상호 간 의견 수렴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김성수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광역 및 개별 비축창고를 포함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난관리물품과 인력,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비용부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이용 등에 사항도 담겼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